

01 교회소식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

국내외 만민의 성도들은 날씨가 기온과 상관없이 수시로 출현하는 다양하고 희한한 형태의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사랑을 느낀다.

02 생명의 말씀

영적인 어린아이

단순하고 순수하며 겸손한 마음을 지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다.

03 간증

“맑고 고운 향을 주님께 올려 드려요”

우리 교회 첫 아동 예능팀, 예능위원회 소속 '프리티' 팀 단원들이 목자의 공간 안에서 체험한 권능의 역사를 전한다.

04 인터뷰

영적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만민!

우리 교회를 방문한 라트비아 뉴 제너레이션 교회 당회장 알렉세이 레자예프 목사가 전하는 은혜와 감동의 인터뷰.

만민뉴스

제787호 2017년 5월 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1998.5.15. 만민중앙교회 상공



2011.1.27. 무안만민교회 상공



2014.5.22. 일본 동경만민교회 상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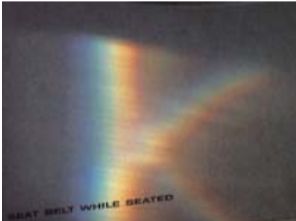
2008.11.21. 몽골만민교회 상공



2010.6.10. 대전만민교회 상공



2015.3.15.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상공



2001.10.1. 필리핀 선교팀 탑승 기내



2000.9.14. 일본 선교팀 탑승 비행기 밖



2006.2.21. 콩고 선교팀 탑승 비행기 밖



2010.4.14. 만민중앙교회 상공



2017.4.21. 콜롬비아만민교회 상공



2015.6.2. 광주만민교회 상공



2002.7.29. 온두라스 선교팀 탑승 비행기 밖



2004.10.1. 독일 선교팀 목은 호텔 밖



2006.2.21. 콩고 선교팀 탑승 비행기 밖



2010.4.14. 만민중앙교회 상공



2012.5.4. 무안만민교회 상공



2016.11.16. 진주문만민교회 상공

원형무지개를 비롯 각종 희한한 무지개

하나님 언약의 상징, 국내외 행사 때마다 끊임없이 나타나

요즘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무지개를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만민의 사역지에는 각종 희한한 무지개가 자주 끊임없이 관측되고 있다.

희한한 무지개의 시작은 1998년 5월 15일, 서울 만민중앙교회 상공에 뜬 원형무지개였다(사진❖). 그 당시 수많은 성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동그렇게 둘러 무지개를 직접 목도하고 환호하였다.

그날 이후 지난 19년간 우리 교회를 비롯 국내외 지교회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개최된 연합대성회, 목회자 세미나, 손수건 집회와 만민 하계수련회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나 선교가 이뤄지는 현장에는 원형무지개 외에도 일자, K자, 대칭 무지개 등 각종 희한한 무지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외 선교차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어김없

이 비행기 그림자를 두른 2중, 3중, 4중 원형무지개를 볼 수 있었다.

더욱이 무지개 빛 현상은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물방울이나 빙정에 의해 태양광선이 반사·굴절되어 일곱 빛깔의 원호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만민의 사역지에서 볼 수 있는 무지개는 날씨나 기온과 상관없이 나타나며, 만민의 사역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무지개를 무언가 좋은 일에 대한 암시나 희망, 행운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성경에서 무지개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창세기 9장 13절에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했고, 에스겔 1장 28절에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

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했다. 요한계시록에도 무지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4장 3절에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 했고, 10장 1절에는 장차 7년 환난 때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 국내외 만민의 성도들이 자주 목격하고 있는 원형무지개를 비롯해 각종 희한한 무지개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사람 사이에 어떤 중대한 약속을 할 때 반지 같은 증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보여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무지개는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원형무지

개는 ‘너와 나 곧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임을 내포하며, 2중·3중·4중의 원형무지개는 하늘이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 주어 영의 공간을 이해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대칭 무지개는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게 된다’는 약속,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서 모든 것이 베풀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며, 항상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녀라” (마태복음 18:4)

영적인 어린아이

직 순종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셨을 때도 그 말씀 속에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즉시 순종했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마음이 되어 진리를 배우는 대로 믿으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면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기뻐하기에 힘쓰지요. 미워하지 말라 하시면 어떤 이유도 대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2) 순수하여 선악 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린이들은 좋은 것을 얻으면 그 자체로 행복해하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마음껏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세상에서 악에 물든 만큼 잘못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낍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선악 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선한 것에는 쉽게 감동 받아 눈물을 흘리며, 악한 것은 몹서리치게 싫어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악이라 생각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시면 심히 싫어하게 되고 어찌하든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삼상 24:1~7).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세한 죄악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결코 용납하지 않고 선을 이루고자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어린이들은 권능의 역사를 볼 때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조그만 것이라도 사모하고 같은 간증을 듣고 또 들어도 감동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간절해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뜨겁게 성결을 향해 나아갈 때야 영으로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해도 믿음 성장이 더디며 자칫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 구원조차 받지 못할 수 있지요.

3) 교만하지 않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지식이 적고 힘이 약함을 알아 어른이 무엇을 가르쳐 주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숨기려 하지 않고 부모나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지요.

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는 진리를 들을 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성경 중 자신의 지식과 맞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 해도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일단 믿고 순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사모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뵈기를 사모한 나머지 체면이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뵈고자 스스로 낮아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는 삭개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진리를 들을 때 그대로 믿을 수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려면

1) 불같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세상의 비진리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교만, 험기, 판단, 정죄,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배신, 간사함, 거짓됨 등으로 마음이 더러워지고 겹겹이 물드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런 죄악들을 마음에서 벗어버리는 만큼 깨끗한 양심으로 변하며 순수한 마음이 되고, 말씀을 듣는 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져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이론과 생각을 파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진 대부분의 지식과 이론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가진 생각과 이론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부인하려 한다면 이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이론을 동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좇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판단 정죄하게 되지요(막 14:3~9).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항상 진리에 비추어 기도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모든 이론과 지식을 파하며, 오직 영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을 좇아가시기 바랍니다(고후 10:5).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소욕을 좇고자 기도하며 변화되어 갈 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은 기도 속에 영적으로 무장하여 모든 육신의 생각과 이론을 신속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단순하고 순수하며 겸손한 마음을 지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녀라” 답변하셨지요.

이는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행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 때가 묻지 않은 맑고 깨끗한 심성, 선하고 좋은 면들을 취하라는 말씀이지요(고전 14:20).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1.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

1) 단순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려 넣듯이 어린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자기 생각이나 지식 속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익을 따지지 않았고 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맑고 고운 어린이들의 찬양과 율동의 향이 성도들에게 행복을 준다.
 '프리티' 팀은 환돌성가대에서 재능과 신앙을 갖춘 10명의 아동을 선발하여 조직되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팀원들의 간증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김유선

“저는 당회장님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제가 태어났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의사선생님이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당회장님의 기도로 정상이 되었어요. 또 프리티 팀에 들어온 뒤, 더욱 건강하고 활발해졌어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프리티 팀에 들어온 후에 영적으로 더 충만해졌어요. 저희 팀이 교회행사에 참여하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고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어요. 원래 남 앞에 잘 서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학급 회장, 부회장도 하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고요. 아토피성 피부염도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받아 지금은 깨끗해졌어요.



이수민

“팀 활동을 하면서 양보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연습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팀 활동으로 양보하는 마음도 커졌고, 시험기간에 팀 연습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 수업 시간에 더 집중했더니 성적도 올랐어요. 발등에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기고 살갓이 벗겨졌지만, 무안단물을 뿌리고 자동응답서비스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최지안

“학교 성적도 올랐어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힘썼더니 믿음도 성장하고 학교 성적도 올랐어요. 예전보다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감기 몸살 같은 질병들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고 치료되었답니다.



이은별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단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힘쓰니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체력이 좋지 않았지만 팀 활동 후 강건해져 멀리하던 체육시간도 이제는 좋아졌어요. 작년에 전교부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자동응답서비스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자신감을 얻어 연설도 잘하고 당선도 되었답니다.



차지서



김예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프리티 팀에 들어온 뒤 찬양 실력이 향상되고 무용을 배워 몸이 유연해졌어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편식하지 않았더니 키가 1년에 10cm나 자랐어요. 어릴 때 중이염이 심해 양쪽 귀에서 고름이 나왔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 말끔하게 치료되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 공부도 잘 돼요”

여섯 살 때 신종플루에 걸렸지만 당회장님의 기도로 신속하게 치료받았고, 다리에 심한 피부발진이 생겼을 때에도 무안단물과 기도로 치료받았어요. 저는 팀 활동을 하면서 주님 사랑을 더 느끼며 찬양하게 되었고, 특송 준비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 마음이 뜨겁고 시원해진 뒤로는 공부도 더 잘됩니다.



전새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소망이 더해졌어요”

저는 팀 활동을 하면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소망이 더해졌어요. 바쁜 일정이지만 몸도 더 강건해지고 친구와 사이도 더 좋아진 것을 느껴요. 1학년 때 놀이기구를 타다가 왼쪽 팔꿈치가 골절되었는데, 당회장님께 기도받고 신속히 낫는 체험도 했어요.



김하늘

“주님의 사랑 느끼며 고운 마음 이뤄가요”

친구들과 다툰 적이 있었는데, 다니엘철야 때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당회장님 사랑이 느껴져서 회개했어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니 그 뒤로 더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어요. 세 살 때, 신종플루에 걸렸지만 당회장님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팀 활동을 하면서 공부에도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김예나

“마음 다한 찬양을 드리고자 하니 공부도 잘하게 되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속했는데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정상아로 태어났대요. 저는 마음을 다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늘 배우며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송을 준비하는 모든 연습 과정, 그리고 특송으로 영광 돌릴 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학교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더욱 감사드려요.



마주안

5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5.7~5.13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주님의 눈물 ▪ 부활 2
- 신자기도 4-9 ▪ 사랑 3-5
- 3차 영혼육 5-11 ▪ 지옥 6-7
- 심고 거두는 법칙 1
- 믿음의 분량 9-13
- 요한계시록 강해 84-92

GCN TV설교

- 회개에 합당한 열매 2(이수진 목사)
- 목자님의 열매 2(이희선 목사)
- 선 4(신동초 목사)
- 아말렉과의 전투(정구영 목사)
- 온 영의 흐름 잘 타기(고경아 전도사)
-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임환택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12
- 권능 스페셜 15 ▪ 마지막 때 11
- 창조와 과학 12 ▪ English 10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76
- 내 마음의 찬양 13
- 모두 드려요 39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5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2

전국 어디서나

olleh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 TV

“만민을 통한 영적 개혁 운동,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Q: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었나요?

저는 이스라엘 오렌 램파리 목사님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박사님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사모함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민을 방문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니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러나 러시아 속담에 ‘백 번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직접 체험하고자 왔습니다. 또 지난해 만민중앙교회 이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집회가 열렸는데 많은 은혜를 받아 올해 6월에도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Q: 만민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전 세계를 다니며 목회자로서 수많은 만남과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민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환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부목사님들과 한복을 입은 성도님들이 예쁜 꽃다발과 함께 따뜻하게 맞아 주시니 마치 어느 나라의 사절단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잘 만들어진 결합체 같았고, 성도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 아이들로 다양했으며,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확실해 마치 영적으로 잘 갖춰진 가족 같았습니다.

Q: 만민중앙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모든 분야가 프로페셔널 했습니다. 조직도 잘 갖춰져 있었고 많은 수의 일꾼이 하나 되어 밝고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작적인 예능과 기술력, 방송장비 등도 훌륭했지요.

교회에서 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는 건 정말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예배 또한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는 등 참으로 살아 있고 활동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 있었고, 성도들은 한결같이 진리로 이끄시는 목자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존경하였습니다. 또한 불같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기도가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삶에 바탕이 되어 있음을 보며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희생과 수고에도 감탄하였습니다.

라트비아 뉴 제너레이션 교회 당회장 알렉세이 레자예프 목사



현재 14개국 400여 개의 지교회를 두고 있는 목회자로 이전에 작가, 오페라·뮤지컬 제작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공연을 할 수 있다니 놀라기만 합니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어떤 뮤지컬에도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국가 차원으로 공연을 한다면 기독교 부흥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국가가 개혁될 것입니다.

Q: 부활절 공연을 매우 감동스럽게 보시던데요.

세계적인 수준의 프로페셔널한 공연이었습니다. 연기자들이 교회 성도들로서 아마추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며, 더 놀라운 것은 노래와 음악이 라이브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대와 시나리오, 편곡도 훌륭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공연의 콘셉트였지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넘어 성령 강림, 제자들의 순교, 그들의 희생과 핏값으로 이어진 선교, 세월이 지나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순교라는 주제는 정말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연에서 본 사도들의 순교는 제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고, 주님과 제자들의 순교의 현실이 우리의 의무로 다가왔지만 그것이 무거움이 아닌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Q: 무안단물수족관도 관람하셨다고요?

해수어와 담수어가 공존하며 사는 것을 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한국 등에서 온 다양한 어종이 있다고 하니 물은 하나의 말씀을 의미하므로 단물 곧 성결의 복음 안에서 다양한 인종이 융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민의 모든 것이 이재록 박사님의 영성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또한 제 마음 깊이 느낀 은혜는 바로 성결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성결을 외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물질주의 영향으로 신앙 자체를 지키는 것도 힘든 세상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통 신앙, 바로 성결을 강조하고 죄를 지적하며 진리를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상급과 축복을 위한 일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지요.

일행 모두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만민을 통한 영적 개혁 운동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확산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예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